

# 큰 눈 와도 무등산 올라 설경 볼 수 있다



국립공원 무등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서서대 인근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무등산 증심사~약사사·월출산 구름다리·지리산 소막골 등 국립공원공단, 대설주의보 내려도 일부 구간 입산 허용키로

큰 눈이 오더라도 무등산 약사사와 지리산 노고단 등 명산에 올라 설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국립공원 관리당국이 대설주의보 발령 시 국립공원 탐방로를 전면 통제해왔으나 국민 편의를 위해 일부 구간에 한해서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더라도 입산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설주의보 발령시 전면 통제되던 국립공원 탐방로 중 일부인 96개 구간을 대설주의보 때에도 시범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내로 눈이 5cm 이

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대설특보 중 하나다.

다만 24시간 내로 눈이 20cm(산지의 경우 30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대설경보 때는 기존대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된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했다.

그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대설주의보 이상의 대설특보가 발령되면 탐방로를 전면 통제해왔다.

대설주의보가 내리더라도 탐방로 일부를 개방한 것은 설경 감상을 위해 국립공

원을 방문하는 탐방객 요구가 늘어난데 따른 결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이 대설주의보에도 개방하기로 한 탐방로 구간은 무등산 증심사지구 통제소~약사사(2km)를 비롯한 96개 구간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곳이다.

무등산의 경우 증심사지구 통제소~약사사, 오감연결길-배등골(800m), 월출산은 구름다리 구간(1.4km), 지리산은 소막골야영장~구가람요초교(3.11km), 화엄사~연기암(6.0km) 등이다. 설악산-내장산-속리산-가야산-덕유산-치악산-북한산 등 주요 명산 국립공원 일부 구간도 이번 결정에 따라 대설주의보시 개방된다.

공단은 설악산 등 각 공원별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저지대 탐방로, 사찰, 안전

이 확보된 설경 명소 등 96개 구간 239.34km를 올해 시범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대설에도 위험요소가 낮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 지역과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대 42곳은 탐방로가 전면 개방된다.

대설주의보 발령 시 해당구간에 탐방객 안전을 위해 거점근무 및 안전요원을 2인 1조로 배치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탐방로 일부 개방을 위해 산악단체, 탐방로 위험성평가 자문위원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설특보가 대설경보로 격상되거나, 현장에서의 위험요소가 드러날 경우에는 즉시 탐방로를 통제하고 탐방객을 대피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여수화학재난방재센터, 광양만권 유해화학물질 시설 특별 점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다음달 11일까지 광양만권 유해화학물질 다량 저장시설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저장탱크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과 관련된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소방청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광양만권 유해화학물질 영

업허가자 중 화학사고시 파급력이 큰 유해화학물질 다량(1만t 이상) 저장시설을 보유한 26개 사업장 42곳이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관리방안, 동절기 동파방지 및 화재예방 대책, 비상대응 매뉴얼 및 취급시설 기준 준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지, 사고발생 대비 조치제

획 등 안전관리 체계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광양만권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조성 50년이 지난 여수산단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백두대간 나비 138종 한눈에

국립생태원, 지리산 등 분포·서식지 분석 자료집 발간

지리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서식하는 나비 138종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국립생태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지난 10년간 진행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계 조사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에서 나비 분야를 따로 뽑아 정리한 '백두대간 나비의 분포와 잡채 서식지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남방노랑나비

자료집은 백두대간 내 나비의 분포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식지수를 평균해 지도로 표현했으며, 나비의 종을 과별로 분류해 나비의 형태와 특징, 서식지 및 국내외 분포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함께 수록했다.

자료집에 수록된 나비는 총 138종이며, 이 중 네발나비과가 70종(50.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전나비과 26종(18.9%), 팔랑나비과 20종(14.5%), 흰나비과 13종(9.4%), 호랑나비과 9종(6.5%) 순으로 서식했다.

네발나비과는 앞다리 한쌍이 퇴화돼 매우 짧기 때문에 언뜻 보면 다리가 4개인 것처럼 보여 '네발나비'란 이름이 붙었다. 대표적인 종으로 네발나비, 표범나비 등이 있다.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 분류된 깊은산부전나비(부전나비과)와 왕은점표범나비(네발나비과)는 설악산, 오대산 등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은줄팔랑나비(팔랑나비과)는 물억새, 갈대류 등 수변식물이 풍부한 습지지역을 선호하는 종으로 백두대간 일대에서는 설악산 향

로봉 일대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줄팔랑나비는 올해 4월 논산 등 금강 일대에서 수변 생태공원 7곳에서 애벌레 346마리, 어른벌레(성충) 2마리 등 총 348마리가 국내 최대 규모로 발견된 바 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표본수가 부족해 분석되지 못한 종에 대한 연구와 국내외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서식처와 생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생태계 기초자료를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집은 공공기관과 주요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홈페이지(www.nie.re.kr)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백두대간(백두산-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지리산) 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환경부, 피아트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 지프 레니게이드 등 2종

환경부는 "FCA(피아트크라이슬러) 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cc급 경유 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로, 모두 2428대에 달한다.

이 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제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비슷한 방식이다.

환경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 g/km)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다.

환경부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합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체 과징금은 32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 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